

式 辭

科學技術處長官 崔亨燮



尊敬하는 國務總理 內外貴賓, 그리고 科學技術人 여러분을
시고 第 5 회 「科學의 날」을 맞아 우리 다함께 科學技術振興
의 決意를 새롭게 하고 科學技術人으로서의 使命을 다짐하기
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
이 뜻깊은 날 本人이 式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
각합니다.

우리가 4월 21일을 「科學의 날」로 定하고 紀念하는 참뜻은
은 國民이 科學을 尊重하고 技術을 익히는 科學하는 國民의 姿
勢를 갖추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.

學園과 研究室엔 探究의 情熱로 充滿하고 生産과 建設의 現
場에는 技術開發의 意慾으로 넘치고 科學화된 國民生活의 토
대 위에 밝은 來日을 設計하고 오늘을 健全하게 살아가는 清
新한 氣風이 造成될 때 祖國近代化의 터전은 더욱 튼튼히 다
져 나아갈 것입니다.

科學의 날은 年例의인 紀念行事로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
다.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科學振興의 意慾이
삼백배순날 계속되어야 하겠으며 全國 坊坊曲曲에 이날의 精
神이 깊이 스며들어야 하겠습니다.

現代 科學技術의 찬연한 成果는 自然의 冷酷에 挑戰하고 眞
理探究에 獻身하여온 創造와 開拓, 忍耐와 勇氣를 바탕으로 한
人間精神의 勝利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.

全生涯를 實驗室의 孤獨한 探究 속에서 바친 우리의 先人들
이 밝힌 그 불꽃들이 오늘의 科學文明을 이룩하게 한 것입니
다. 創造의 情熱은 어려운 與件에서 더욱 뜨겁게 불탔고 逆境
속에서 發明의 偉大한 結實은 맺었던 것입니다.

親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!

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 科學技術人의 두 어깨에 놓여진
使命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
시다.

지금 우리는 經濟建設과 自主國防의 크나큰 國家的 課題를
안고 모든 國民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 科學技術
人들에 바라는 國家的인 期待는 실로 큰 것입니다.

우리의 科學技術은 日淺하고 研究環境은 아직도 不備합니다.
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與件을 참고 견디며 最善을 다

하여 나라와 國民이 우리들에게 期待하는 수많은 일들을 수행
하여야 하겠습니다.

우리들의 할 일은 많고 時間은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.

先進國과의 技術格差와 經濟力의 優劣은 擴大만 되어가는
現時點에서 그들보다는 다른 비장한 覺悟와 努力 없이 어떻게
그들을 뒤쫓아 갈 수 있겠습니까?

우리들이 그들을 따라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땀과 誠과
開拓의 開魂 뿐이라 하겠습니다.

우리는 지난 60年代에 科學技術振興의 基盤을 튼튼히 하는
데 힘써 왔습니다. 70年代에도 계속하여 우리가 目標하는 技
術革新을 이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科學風土의 造成, 先進技術導
入의 促進과 導入技術의 消化 改良을 위한 研究開發에 倍前의
努力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. 그리고 頭腦開發과 技能의
熟達로 豐富한 人力資源을 科學人力化 技能人力化하여야 할 것
입니다.

앞으로 政府, 學界, 產業界, 研究機關 相互間의 깊은 理解
와 協同 그리고 共同의 努力 위에서 우리 世代에는 期必코 科
學韓國의 튼튼한 土台를 구축하여 우리의 後孫들에게는 「科學
하는 나라」의 國民된 證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 일하여
야 하겠습니다.

希望과 生氣에 가득찬 4월 科學의 날을 맞아 우리의 使命을
가슴에 되새기고 教師는 강단에서 研究員은 實驗室에서 技術
者는 經濟建設의 일터에서 各各 맡은 바 職分과 誠實을 다하
고 남들이 자는 時間에도 探究와 創造의 불꽃을 밝혀야 하겠
습니다.

愛國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愛國하는
길이라 믿습니다.

그간 여러 어려움을 默默히 참고 科學技術振興에 힘써오신
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深甚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.

우리 다 같이 科學韓國의 希望찬 大道를 힘차게 開拓하여
나아갑시다.

感謝합니다.